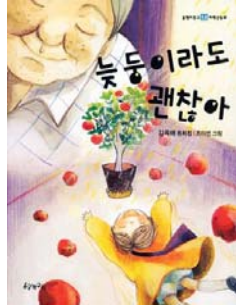


사라져가는 풍습 속 따뜻한 동심

동화작가 김옥애씨 '늦둥이라도 괜찮아' 출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단아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는 광주일보 출신 동화작가 김옥애씨가 단편동화집 '늦둥이라도 괜찮아'를 냈다. 이 동화집에는 요강, 전통시장, 목화송이불 등 사라져간 우리 문화의 단면들이 곳곳에 등장해 아이들에게 옛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밖에 '세상에 가장 예쁜 엄마'는 주인공과 엄마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장에 가

표제작 '늦둥이라도 괜찮아'는 꽃을 피울 시기가 지난 사과나무를 정성껏 보살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겼다. 늦게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과 함께 할아버지가 보살핀 사과나무가 힘겹게 결실을 맺는 장면이 더욱 감동적이다. 또 '까치밥'은 집으로 흥시를 먹으러 온 '뽕추리'는 새와 영혼이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의 모습에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작품 '할머니의 요강'에서는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요강을 버리겠다는 엄마와 이를 말리는 현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강을 통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는 현아의 잔잔한 일상이 사랑스럽게 그려졌

서 겪게 되는 일을 그렸고, '꽃이불'은 할아버지와 추억이 담긴 목화꽃이 그려진 이불에 관한 이야기다.

강진 출신인 김씨는 광주교육대학교와 호남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 1999년 명예퇴직 후 현재는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동화집 '이상한 안경' '너는 어디로 갔니?' '별이 된 도깨비누나'를 냈으며 광주예술문화특별공로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광주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또 장편동화 '그래도 난 보물야'로 제28회한국불교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청개구리·9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중화 대가 '남농' 작품 살 기회

전남문화예술재단 내일 진도 윤림산방서 토요일매

남중화 대가 남농 허건(1908~1987년) 선생의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진도 윤림산방 '남도에술은행 토요일경매'에서 남농의 작품을 경매한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토요일경매에서 남농의 작품이 출품된 것은 처음이며, 이번 경매에서는 남농의 '강변 산수'(33x112cm)가 새주인을 찾는다.

'강변 산수'는 남농이 즐겨 그리는 소나무를 소재로 담묵과 농묵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단순화된 필선과 넉넉한 나무터 풍경을 담고 있다.

할아버지 소치 허련(1808~1893

년, 아버지 미산 허형(1861~1938)의 예술혼을 이어받은 남농은 한국화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남농은 남도의 특징을 살린 실경화를 뿌리내렸고, 지난 1985년 목포에 남농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그가 이룩한 예술 세계는 호남의 전통 화단을 중심으로 후대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남도에술은행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난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진도 윤림산방에서 경매하고 있다. 이 경매를 통해 지금까지 2116점이 낙찰됐다. 문의 061-280-582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변산수'

임동혁 낭만선율 빛고을 적신다

내달 19일 광주문화예회관 피아노 독주회

광주 첫 공연...쇼팽·라흐마니노프 곡 연주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오는 2월 19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임씨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 건 이번 무대가 처음이다. EMI를 통해 데뷔한 지 꼭 10년을 맞아 11개 도시 전국 투어 일환으로 마련된 기념콘서트다.

임씨가 대중들 앞에 강한 인상을 남긴 건 1996년 12살의 나이로 모스크바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면서 부터다. 형인 임동민씨가 1위를 차지, '형제 피아니스트'로 관심을 모았던 임씨는 2001년 한국인 최초로 통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가를 높였다. 특히 이 콩쿠르에서는 우승뿐 아니라 솔로

리사이틀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등 5개 상을 한꺼번에 수상했다.

이후 2003년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과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해 핫 이슈를 몰고 온 그는 2005년 쇼팽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하고, 2007년에는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공동4위를 차지하면서 퀴 엘리자베스-쇼팽-차이코프스키로 대표되는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그는 아르헤치의 추천으로 2002년 세계적인 음반사 EMI를 통해 공식 데뷔, 그 앨범으로 '황금 디아프조상'을 받았으며 두번째 앨범 역시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이어졌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이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팔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김선욱 등과 함께 클래식 음악계의 핫스타로 꼽힌다. 인터넷 팬 카페 회원수만 4만명에 이르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해 왔다. 2008년 바흐, 2010년 쇼팽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바빠 움직였던 그는 지난해 연주활동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나섰고, 오는 2월 11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11개 도시를 돌며 올해 다시 빼곡히 짜인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광주 공연 레퍼토리는 서울 공연과 다르게 짜여졌다. 지난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를 진행하면서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찬사를 받았던 임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들려준다.

연주레퍼토리는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피아노 소나타 3번 b단조 작품58'과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2번' '전주곡 5번', '피아노 소나타 제2번' 등이다.

티켓 가격 7만원, 5만원, 3만원. 문의 062-220-0541,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외이웃과 '음악 나눔'

'뮤직스쿨' '꿈꾸리 오케스트라' 28일 공연

아름다운 문화나눔이 만들어낸 작은 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 '조선대 서영화교수와 함께하는 뮤직스쿨'(이하 뮤직스쿨)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선대 사범대학 6층 연주실에서 '꿈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되는 '뮤직스쿨'은 지난 10개월간 90여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쳐왔다.

참가자들은 피아노와 성악, 바이올린·플루트·첼로, 장구와 단소 가운데 한가지씩을 선택, 개인당 3개의 악기를 주1회, 2시간씩 배웠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작은별 변주곡', '벨라판타지아' '설장고 합주',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

정이다. 문의 062-233-3652.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꾸리 오케스트라'도 같은날 뜻깊은 첫 무대를 선보인다.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발한 단원 35명이 25차례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광주청소년교향악단 단장인 김연준 음악감독의 지휘봉을 잡는다. '작은별', '고향의 봄', '여름방학', '가을길' 등을 연주하고 단원 전체가 함께 부르는 '도레미송'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꿈꾸리 오케스트라'는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단원을 더 확충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직스쿨' 연습모습.

농부화가 지용출의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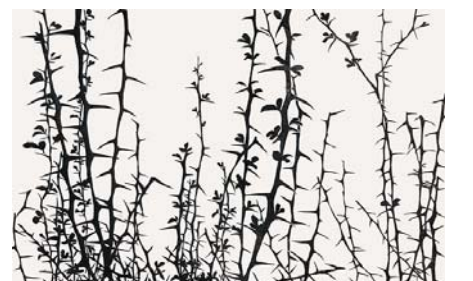
광주롯데갤러리 내달 15일 유작전

광주롯데갤러리는 오는 2월 15일 까지 농사 짓던 관화가 고 지용출(1963~2010년)의 유작전 '흙의 속들에서 피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농부 화가로서 살다간 지용출의 작품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60여점을 선보인다.

그의 초기작인 '개밭지구'와 '효자동 시리즈' 등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낳은 삭막한 도심 풍경과 낡은 건물 등이 주요 소재다. 또 비릿한 바다 내음과 고된 어민들의 일상을 담아낸 부안 해안, 갯벌, 말린 무청, 갯벌의 낡은 관자, 늙은 호박, 탱자나무, 닻, 질경이, 야생화, 잠자리 등 정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그는 추계애대 관화파를 나온

뒤 전주로 이주 후 전북민미협 창립에 앞장섰고, 11차례 개인전을 여는 등 서정적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지난 2010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늦어름'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 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마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르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